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침묵'... "尹정부, 野탄압·무능" 비판

### 측근 구속 등 현안 관련 메시지 없어 100일 계기 공개 발언, 후 다시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5일에도 최측근들의 잇단 구속 등 사법리스크에 대해 침묵했다. 대신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 대화, 타협 실종'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민생 정치 실천은 자평했다.

검찰 수사가 압박 가운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윤석열 정부 비판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 내 단일대오 유지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이 '아쉬움이나 더 할 말이 있는지',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최고위 때 드린 말씀이 있다"는 답변 외 유의미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 질문을 의식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날 질의응답 없는 최고위 발언을 통해 당 대표 100일 업무를 자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취임 100일 계기 기자회견

과 여부와 사법 리스크 사이 연관성에 거리를 뒀다. 현재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신년 계기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방향의 설명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 대해 "이재명 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여러 상과나 각오를 밝히는 말이 있었다"며 "정기국회 진행 중이라 예산 관련 얘기, 법안 처리 상황 점검 논의가 좀 있었다"고 전했다.

또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그 문제는 검토가 있었는데, 정기회가 진행 중이고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지금 말씀드리기 보단 신년에 상황을 정리한 다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내일 사이 특별히 100일을 맞아 하는 간담회는 없을 것으로 안다"면서 그 배경에 '사법 리스크' 질의 우려가 있는질문에 "그렇지 않다.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선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상기하고 "지난 100일 동안 국

민과 당원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중점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 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이라며 "초부자 감세, 비정한 특권 예산에 맞서 따뜻한 민생 예산 관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기틀을 마련 중"이라며 "정당 사상 최초 중앙당사 당원존, 국민 응답 센터로 소통을 강화했다. 당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이라고 혹평하고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위기를 자초했다"며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 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 성공을 위해 정부 여당과도 협력할 건 협력,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 200일간 정치가 실종했다"고 비판했

다.

그는 윤석열 정부 200일에 대해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이라고 혹평하고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위기를 자초했다"며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규탄했다.

최이슬 기자

## 尹대통령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전략회의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을 통해 정부의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열린 '제 59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를 통해 "수출은 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차리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정상외교는 철저히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 코리아를 심분 활용해 원전, 방산, 해외 인프라를 새로운 주력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액과 세계 수출 순위 6위를 달성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날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제1차 수출전략회의, 방산 수출 전략회의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상 경제 외교도 수출 확대에 맞춰 세일즈 외교를 해나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유공자 포상과 수출의 탑 친수 등도 이뤄졌다.

유공자는 총 579명(훈장 33, 포장 31명, 대통령 표창 77명, 총리표창 86명, 장관 표창 370명)이 선정됐으며 수출의 탑은 삼성전자 등 10개사에 수여했다.

김재환 기자

## 고민정 "외신도 언론탄압 걱정...輿, 방송법 논의하자"

### "輿, 방송 장악 의도 아니면 방송법 의견내달라" "방송법, 공영방송 사장 추천 국민 참여 제도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에 "외신에서조차 언론 탄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방송법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언론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자유특위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기쁜 마음이 아니라 참 슬펐다"며 "언론자유가 얼마나 침해됐으면 민주당에서 언론 자유를 위한 특위를 만들 지경까지 왔을까"라고 탄식했다.

그는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대한 신뢰도는 아시아에서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수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불과 몇 개월만에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언론자유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은 결국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 하나가 방송법"이라며 "공영 방송에 정치권이 어느정도 입김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이 있었고 수년동안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과방위에서는 이 방송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할 게 아닌 것이 법사위에 가더라도 국회법에 의하면 60일 지나게 되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과방위로 오게끔 돼있고 그렇게 되면 바

로 분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숫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고 논의를 해주십사 마지막으로 한 번 부탁드린다"며 "과방위 국회 의원들께서는 전혀 논의에 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KBS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방송법이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를 위한 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정파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사장을 뽑을 때 국민이 참여여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몫은 21명의 이사 중 국회 5명으로 확 줄었다"며 "어떤 정파도 이런 상황에서는 사장 임명이나 이사임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